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2월 5일(금)  
..(음력 10월 16일)..  
Пятница  
5 декабря 2025 г.  
№ 47 (1216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외통위 통과

한국에서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5월 30일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이 지난 11월 28일(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1월 25일 원안가결된 이 개정안이 3일만에 외통위에서 통과되었음을 전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전된다. 사할린 동포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 무명용사의 날, 조국 수호자 기려

지난 3일(수) 러시아 무명용사의 날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영예 광장에서 추념행사가 거행되었다. 행사에 군 관계자, 수색 운동부, 지역 정부 및 의회, 법집행기관,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묵념 후 불멸의 성화에 헌화하고 전몰 무명용사들을 기렸다. 이날 전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군인들을 기리는 초총 발사가 울려 퍼졌다. 무명용사의 날은 1966년부터 매해 12월 3일 러시아에서 기념하고 있다.

### 사할린주, 전국 포용성 평가에서 1위 기록

러시아 전략적 기획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할린주가 2025년 전국 포용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및 장애아동 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아빌림픽스'국내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한 사할린주 대표팀은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참가자의 67%가 메달을 획득했다. 사할린 지역의 경험은 효과적인 포용적 직업교육의 모델로 연방 수준에서 인정을 받았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디미르 산기 작품 낭송 대회 개최

지난 11월 29일(토) 님프작가인 블라디미르 산기 탄생 9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샘 곁에서'낭송경연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올해 심사위원단은 사할린주의 11개 자치구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직접 발표한 공연(44개 작품)과 캄차카 변경을 비롯해 샤프테르부르크의 참가자들이 출품한 17편의 영상 작품을 평가했다. 주최측은 이번 경연에 100여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새해 맞아 장식 준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해 장식이 본격화된다. 12월 10일까지 주요 거리의 조명과 트리 장식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의 레닌광장, 주정부 청사 앞, 그리고 승리광장에는 20미터의 새해 트리가 설치되고 또한 계획구역들에는 8미터 크기의 울가를 세우고 장식한다. 새해 행사가 많은 관례로 시민들이 휴식을 좋아하는 가까운 공원과 로가트카 강변에도 특별 장식이 준비된다.

## 사할린 주 연간 성과: 교육분야

사할린 주 교육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교육, 가족, 청년 및 아동' 국가 프로젝트 실행의 일환으로 올해의 성과를 집계했다. 교육과 발전을 위한 현대적이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섬 지역의 대규모 변화는 사할린 지역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올해는 새로운 교육 시설의 개관과 대대적 수리부터 학생들의 전국 및 국제 수준에서의 인상적인 성과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사건들로 가득 찼다.

올해의 주요 사건은 '교육'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사할린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아방가르드' 주거 단지 내 1,260명 수용 규모의 새로운 제24학교 개관이였다.

(3면에 계속)

## 주지사, 실버 봉사자들에게 감사장 수여

지난 3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6회 '경험의 힘-선의 힘' 사할린주 실버 자원봉사자 포럼이 개막했다. 이 행사는 매년 12월 5일 러시아 자원봉사자의 날을 앞두고 열린다.

개막식에는 도서 지역 전역에서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고,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주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여러분은 도서 지역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관심, 보호, 존중' 지역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동반자이며, 함께 우리 지역의 번영을 위해 일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현재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보건, 사회 복지, 스포츠, 문화,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사할린 지역의 실버 자원

봉사자 수는 1,500여명이다.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주택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지사는 아파트 건물과 마당 관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 7,400개 이상의 주택 입구(현관)와 5,500개 이상의 주변 구역이 정비되었고, 2026년까지 1,100개 주택 지하실 보수 작업이 계획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지하실 침수 원인 제거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와 그 가족 지원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티뎬스코예 구역의 실버 자원봉사자 알렉산드르 프로호로브는 "우리는 자동차 행진을 조직하고, 전선으로 소포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인을 위한 천 개' 캠페인을 시작해 천 켈레의 양말을 모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약품을 준비할 계획이며, 앞으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

고 말했다.

주지사는 연설에서 지역의 여러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할린 지역 의료는 국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내년 초 추가 외과 개설로 모든 종류의 수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난 5년간 사할린 주에는 47개의 새로운 보건 시설이 문을 열었다.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또한 도서 지역 문화 발전에 주목했다. 주지사는 지역이 음악원 개설을 포함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이틀 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 및 관련 부서 대표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 기관을 방문하고, 마스터 클래스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들을 위해 위장망 등 필수 물품을 직접 제작했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인들에게 올해 기억할 사건, <토박이> 다큐멘터리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12월이면 보통 '올해는 어떤 해였는지?'란 질문에 답한다.

아마도 많은 사할린한인들에게는 2025년은 '토박이' 다큐멘터리로 기억될 것 같다. 얼마 전에 새고려신문사를 찾아온 '토박이' 영화의 제작진은 첫 상영 후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본사 기자와 나누었다.

올해 8월 1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토박이' 장편 다큐멘터리가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어 사할린한인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할린 한인 3세인 안톤 도카 감독(41)과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39)가 2년 반에 걸쳐 제작한 이 작품은 사할린,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촬영됐으며, 36명의 인터뷰와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의 뿌리와 정체성을 조명했다. 특히 1세대와 2세대의 직접 구술과 이야기들, 그리고 한인들이 사할린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남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 '이 영화가 사할린한인 역사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영화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사할린으로 온 첫 두 세대가 고생하며 일했을 때, 그들은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는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달라(사할린한인

영화를 찍어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해냈으니, 우리 세대가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로서 아니라 한 세대로서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첫 상영 이후 영화에 출연한 코르사코브의 할머니들을 위해 '토박이' 다큐멘터리가 계획한 대로 코르사코브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수많은 희망자들의 요청으로 영화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재상영되었다.

영화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사할린 지방들에서도 상영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부탁을 사할린한인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 고영순 회장이 직접 연락을 하여 직접 지방도 같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네웰스크 시와 프라우다 마을을 찾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라고 하 프로듀서가 설명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들의 일환으로도 '토박이' 상영을 부탁했다. 제작진은 아무 단체, 기관이든 상영을 거절하지 않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주최한 '재외동포의 날' 행사,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콘퍼런스, 사할린 국립



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사할린주와 한반도에 대한 학술대회의 부속 행사로도 영화가 상영되었다.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차세대 고려인 대회에 초대를 받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할린한인단체와 협력하여 순회 상영을 가졌다.

제작진은 '모스크바에서 상영회를 두 번 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가볼 기회가 생겼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상영 후 제작진은 꼭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는 관객 반응에 대해 "모든 상영장에서 많은 격려와 따뜻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가 가장 인상적으로 받은 소감은 한 관객이 "이런 아들들을 두신 부모님을 만나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 행사 끝난 후 그는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한다.

안톤 도카 감독은 "모든 상영회에서 질문이 거의 비슷하다."며 이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는 '계속 2차 제작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영화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은 이 영화를 많은 사할린 한인 젊은이들이 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작진은 이 영화가 4세대, 5세대 사할린 한인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세르게이 하 프로듀서는 "젊은이들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사할린 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안톤 도카 감독은 이번에 모스크바 차세대 포럼을 다녀온 인상도 말하였다. 그는 "사할린 한인과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역사를 가졌다."며 "그들이 우리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떨렸지만, 예상 외로 깊은 공감과 따뜻한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실 포럼에서 뜨거운 반응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영화 제작자들이 사할린으로 돌아온 후 포럼에 참가한 로스토브-나-도누의 한 젊은이에게서 '토박이' 상영회를 로스토브에

서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영화 제작 작업(음악 작곡,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궁금한 질문도 몇 가지 하였다.

"음악은 17-18살 때 취미로 시작한 거고, 전문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아시아적인 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직접 작곡했고, 오래된 메모를 바탕으로 가야금 같은 민속 악기 음색으로 편곡해봤죠. 인공지능은 사진 화질 개선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음악이나 콘텐츠 생성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에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도카 감독이 답했다.

제작자들은 현재 영화의 한국어 및 영어 자막 처리 작업을 하는 중이다. 한국어 자막 번역은 '우리말' 방송국(국장 김춘자)에서 돕고 있다. 그리고 '토박이'를 국내외 영화제 출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상영 허가증'을 받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허가증은 영화제에서 영화관 상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사할린주, 러시아를 넘어 곧 한국에도 소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할린한인연합회 고영순 회장을 통해 제주도에서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제작자들은 안산 고흥마을과 김포에서도 상영회를 열 계획을 논의 중이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 교사, 전 러시아 교육 선봉 공모전 우승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 교사 알렉산드라 프라드코가 전 러시아 교육 선봉 공모전 '문화' 부문에서 전국 40명 중 최고 교사로 뽑혔다. 이 권위 있는 대회는 러시아 전역에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교사들을 발굴해왔다.

'문화' 부문은 총 15,500건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참가자들은 원격 과정, 테스트, 전문가 면접을 거쳐 우위를 가렸다.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플랫폼 공보실은 교사들의 높은 관심이 문화를 새 세대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전했다.

우승자 알렉산드라 프라드코는 제1 알렉산드르 푸쉬킨 김나지아의 러시아어 및 문학 교사이며, 35년간 교육 분야에 헌신해왔다. 대회의 우승은 그녀에게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접근과 교육 프로젝트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 교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인격 형성에서 문화와 교육의 상호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종 합격자들을 위해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강의와 프로젝트 세션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우승자들은 자질 향상에 대한 연수 수료증을 받고 '교육 선봉 성취' 전문가 커뮤니티에 합류할 것이다.

### Сахалинский педагог выиграл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Флагины образования

Учитель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андра Прядко стала одной из 40 лучших в стране в конкурсном треке "Культура". Престиж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выявило сильнейших педагогов, которые смогут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 внедря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сего на трек "Культура" поступило свыше 15,5 тысяч заявок.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дистанционный курс, тестирование и экспертные собеседования. Как со-

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такой ажиотаж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педагог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ультуру как ключевой элемент воспитания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Прядко,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гимназии №1 им. А.С. Пушкина, посвятила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35 лет. Победа в конкурсе открывает для нее доступ к новым методикам и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Сама педагог отметила, что конкурс позволил ей по-новому оценить взаимосвязь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личности.

Для финалист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куда вошли лекции и проектные сессии.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удостоверения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войдут в экспертное сообщество "Созвездие Флагинов образования".

### 1월분 연금, 12월에 지급

1월분 연금이 12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연금 수급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RT 보도에 따르면, 알렉세이 고위린 국가두마 의원(중소기업 위원회 위원)이 이와 같이 밝혔다.

고위린 의원은 이번 결정이 긴 새해 휴일 기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12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연금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2월 2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1월분 연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러시아 사회기금을 통해 자동으로 연금 수급자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자금은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국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고위린 의원은 또한 12월분 연금은 기존 일정(12월 3일~25일)대로 지급되며, 1월분 연금은 2026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에는 3,800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보험 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7.6%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령 보험 연금 평균액은 2천 루블리 증가한 27,100루블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Пенсии за январь выплатят в декабре

Пенсия за январь поступит на счета пенсионеров с 25 по 29 дека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член комитета по малому и средне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Алексей Говырин, пишет RT.

Как отметил Говырин, решение вызвано длинными новогодними праздниками. Пенсионер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ы в период с 25 по 29 декабря. В ряде субъектов РФ деньги начислят уже 24 декабря.

Для получения январской пенс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 потребуется, деньги поступят на счета пенсионеров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 линии Соцфонда РФ.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поступать на счета россиян постепенно, чтобы не вызывать чрезмерной нагрузки на систему.

Говырин также уточнил, что пенсии за декабрь придут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 с 3 по 25 декабря. Пенсии за январь начислят уже с учетом индексации 2026 года.

Индексация страховых пенсий затронет 38 миллионов россиян в 2026 году. Выплаты будут проиндексированы сразу выше уровня инфляции — на 7,6%.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редний размер страховой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вырастет на 2 тысячи рублей и составит 27,1 тысячи рублей.

### 사할린 체호브 센터, 어머니의 날 맞아 감동적인 사진 프로젝트 진행

어머니의 날을 맞아 기념 사진 프로젝트가 사할린 극장에서 시작되었다. '주연'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배우의 이중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체호브 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이 독특한 프로젝트를 통해 극장은 알레리 리마렌코가 2025년과 2026년을 행복한 모성의 해로 선포하는 기획을 지지했다. 여성이 모성과 경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체호브 센터는 소속 여배우들과 센터장의 사례를 통해 상기시켰다.

촬영에는 다자녀 어머니인 크세니야 코추예와, 두 아이의 행복한 엄마 나탈리아 샤르코와, 체호브 센터의 관장이자 사할린주 공로 문화 예술인인 타치야나 코르네예와 및 기타 극장 대표 여성들이 참여했다.

창작 과정은 '새로운 무대' 공간과 극장 카페 '문화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8면에 계속)

## 사할린 주 연간 성과: 교육분야

### (1면의 계속)

'청년 및 아동'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 '학교 교육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 틀 내에서, 2025년에 주내 8개 학교에서 대대적 수리가 실시되었으며, 이중 75%는 농촌 및 소도시에 위치해 있다. 작업에는 지붕, 외벽, 내부 공간, 전력 공급 시스템, 난방 시스템 및 급식 시설 보수가 포함되었다.

러시아 통합당 프로젝트 '행복한 어린 시절'과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 '가족' 틀 내에서 7개 유치원 건물의 대대적 리모델링과 18개 유치원 영역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종합적 개선의 대표적 사례는 주지사의 특별한 통제 하에 재건축이 진행된 아나와 시의 제8유치원 '스카즈카(동화)'이다. 또한 '가족' 국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제55유치원 '웨스누쉬카'도 보수되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적 과제 중 하나는 농산업 단계에 고급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원활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85명의 학생이 농업 기술 분야의 16개 학급/그룹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98개의 '성장 지점' 센터와 16개 학교가 '러시아 농업 은행'의 '나는 농업에 종사한다' 플랫폼에서 운영된다.

11월 21일에는 지역 교육 및 농업 생태계와 지방 자치단체 및 지역 정부 대표를 포함해 26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인 제3회 지역 포럼 '마을은 교사로 빛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현대 농촌 학교가 어떻게 학생, 교사, 마을 및 전체 지역에 의미 있는 실제 프로젝트가 구현되는 공간이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 대화의 핵심 플랫폼이 되었다.

포용 교육 분야에서 올해의 주요 성과는 '청년 및 아동' 국가 프로젝트 틀 안에서 개최되는 전국 챔피언십 '아빌립픽스'에서 사할린 팀이 거둔 인상적인 성공이다. 사할린 팀은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수상자 비율은 참가자 대비 67%로, 이는 최근 몇 년 간 최고 기록이다. 특수 군사 작전 참전 용사들도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이 중 두 명이 동메달 수상자가 되었다.

사할린 지역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은 "전국 대회 활동에 참가하면서 사할린 참가자들은 전국 수준에서 높은 전문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참가 학생에서 졸업생 학생으로, 학생 참가자에서 전문가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챔피언십 참가 훈련을 지도하는 멘토-전문가로 성장한 실제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전했다.

2025년 '청년 및 아동' 국가 프로젝트의 연방 프로그램 '농촌 교사'의 일환으로 포로나이스크, 네웰스크, 아나와, 돌린스크의 학교에 4명의 교사가 일자리를 얻어 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025년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9월 1일 사할린 광업 기술 전문학교(샤호츠크 부락)를 기반으로, 사할린 폴리테크닉 센터 5호(고르노자워드스크 마을), 사할린 산업 기술 전문학교(오하 시)와 실물 경제 기업인 '손첵스키 석탄전' 유한회사와 '고르나크-1' 유한회사가 참여하여 지역 최초의 광업 분야 교육-생산 클러스터가 문을 연 것이었다. 이 클러스터 설립은 연방 프로젝트 '프로페시오날리테트' 경쟁에서의 승리와 발전을 위해 3,200만 루블리를 투자한 고용주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가능해졌다.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은 "2025년의 성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프로젝트 틀 안에서의 체계적인 작업이 어떻게 사할린 지역 전역의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학교를 짓고 기존 학교를 보수하는 것을 넘어, 유아 시절부터 직업 습득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현대적이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교육의 질, 접근성 및 포용성에 있으며, 이는 '아빌립픽스' 챔피언십에서의 승리와 '프로페시오날리테트'와 같은 전략적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으로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아이, 모든 젊은 전문가가 여기 사할린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우리 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 '에트노스' 김 예브게니아 교사, 현지 무용강사들에게 한민족 무용 기술 가르쳐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우니온'리소스 센터에서 사할린주 안무가들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포럼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한민족 전통 무용' 및 '한국 문화' 강사인 김 예브게니아가 진행하는 수업이었다.

지난 11월 27일 김 예브게니아 강사는 '한민족 전통 무용의 기본 요소와 특징. 부채를 이용한 동작 기술'이라는 주제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이 수업에서 지역 각지의 무용 단체 지도자 및 강사들은 한민족 무용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전통 소품인 부채를 다루는 세부적인 방법을 배웠으며, 인기 춤 '부채춤'의 안무 조합도 연습했다.

'에트노스'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참여는 해당 학교의 높은 교육 수준을 증명하고,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세미나 수료식에는 김 교사가 지도하는 '개나리' 무용단의 활기차고 우아한 공연이 올라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을 축하해 줬다. 이 소식을 '에트노스'학교의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에트노스'학교 제공)

## 안산 사할린동포 생애 아카이빙 보전 서둘러야

강제이주 후 절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 귀국해 안산에 동지를 둔 사할린 동포 1세대 생애를 아카이빙 (Archiving) 방식으로 기록·보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가 90세에 육박하고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처음 이를 주장한 최찬규 시의원은 "사할린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더부살이 삶을 살다 정착해 남은 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애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할린 이주는 한국인이 1930년 말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의 탄광과 벌목장, 군수사업장 등지로 강제로 끌려갔던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다.

그리고 일본 패망 후 사할린이 소련에 편입되면서 무국적 상태로 남아 갈려 버린 생활을 해야만 했다. 2000년 2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신축된 공공 임대주택인 고향마을아파트로 이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토록 늦게 시작된 귀국도 배우자 및 자녀가 러시아 국적이면 함께 귀국할 수 없어 가족이 뿔

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강제이주와 고된 생활 그리고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자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다.

이들의 생애는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할 역사적 기록이다.

그들이 겪은 아픈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다.

사할린 동포 정착비율은 안산시가 국내에서 가장 높다.

그런 만큼 이들의 정착 과정과 공동체 형성 경험 등은 안산시의 현대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고 공적기록으로 남길 가치도 충분하다.

많은 어르신이 지금도 마음 한곳에 '한'이 남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생애를 정리하는 과정에 전문가들도 참여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응어리를 말로 표현해 정서적 회복을 도와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생애를 영상과 음성, 문서 등으로 체계화해 장기적으로 보존 가능한 공적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 2025.11.30)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김도여

관리번호	7041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도여	한자	金道汝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67)	사망년월일	1917-02-04
본적	미상		

### 공훈록

노령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1911년 노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李相高)·이종호(李鍾浩) 등과 함께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하고 의원, 총무를 거쳐 회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권업회의 목적과 이념은 시베리아 한인사회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권업(경제)문제와 항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항일(정치)명제를 결부시키는 전술을 취하면서 조국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권업회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서 교육부·실업부·경용부·종교부·선전부·검사부·통신부·응접부·기록부·사찰부·구제부 등을 두었으며, 1911년 12월 19일 창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권업신문(勸業新聞)」의 간행, 교육진흥활동, 한인의 자치활동, 토지 조차와 귀화 등을 들 수 있다.

김도여는 1914년에 1월 5일(러시아력) 권업회총람소에서 열린 총회에서 신한촌 거류민회의 회장에 선출되어 신한촌 동포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1916년 12월에는 연해주에서 경애학교(敬愛學校) 교장으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 학교의 학생수는 총 57명이며, 수업 교과목은 조선지리·산술·생리·작문·병식제조·창가·수신 등이었다.

이처럼 그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동포사회의 지도자로 활동

하던 중 1917년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자료(國史編纂委員會) 第34輯 108·109·113~115·122~124면
- 增補 李相高傳(尹炳奭, 1998) 148·151면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117면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26면
- 新韓民報(1917. 2. 15)
- 獨立新聞(1920. 3. 30)
-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 5면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5卷 145면
- 勸業新聞(1912. 12. 19, 1914. 2. 1)

###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주)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Зачем нам нужен Мир,  
если в нём не будет России?»  
Путин В.В.

## Зачем нам мир, коль нет России в нём?

Лишь киевская Русь – праматерь трех славян  
Однажды Богом Православным освещённая...  
Ты сквозь века вдыхала веру в россиян...  
Земная матушка, Владимиром крещённая

**Припев:** Планета человечества невысказанно мала  
Всем жить да жить, не балуясь с огнём,  
Но рвут и мечут бесы, чтоб Россия не жила...  
Зачем нам мир, коль нет России в нём?

С мечами рвались к нам, затем и со штыком...  
Вставала Русь, Россия и страна огромная  
И каждый раз сметал всех ярый «русский лом»...  
Россия – матушка жива, не покорённая

**Припев:** Планета человечества невысказанно мала  
Всем жить да жить, не балуясь с огнём,  
Но рвут и мечут бесы, чтоб Россия не жила...  
Зачем нам мир, коль нет России в нём?

Как полю пшеничному весной цвести  
И хлебами, детьми дорожить словно вечностью,  
Крест традиций семейных по миру нести  
России – матушке, что жива бесконечностью

**Припев:** Планета человечества невысказанно мала  
Всем жить да жить, не балуясь с огнём,  
Но рвут и мечут бесы, чтоб Россия не жила...  
Зачем нам мир, коль нет России в нём?

Планета человечества невысказанно мала  
Всем жить да жить, не балуясь с огнём,  
Но рвут и мечут бесы, чтоб Россия не жила,  
Зачем нам мир, коль нет России в нём?

28.11.2025г.,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ЭХО Чан.

## Ким Евгения поделилась с коллегами техникой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Семинар-практикум для хореографов прошёл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26 по 28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Унисон» состоялся семинар-практикум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а в практикум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исциплин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танец»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ДШИ «Этнос» Ким Евгения Сенхаковна.

27 ноября она провела автор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на тему «Основные элементы и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Техника исполнения движений с веером».

В ходе занятия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ллективов и педагог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базовой техникой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освоили нюансы работы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атрибутом — танцевальным веером, разучил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комбинации из известного танца с веером («Бучечхум»).

Участие педагога «Этноса» в статусе эксперта подчеркивает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школы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егионе,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школ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насыщенной и продуктивной творч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Ярким аккордом, завершившим программу семинар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Кенари» ДШИ «Этнос»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им Е.С. Зажигательный и изящный номер юных артистов стал творческим поздравление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был встречен бурн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ем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 Дорогому старшему брату

*Дорог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по которому скучаю! Твой брат Им Сун Сок (林順錫 임순석), что вот уже более 30 лет нахожусь здесь, как скованный по ногам, в ожидании дн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влача горькие дни.*

*Снова беру в руки кисть (1), чтобы выразить тебе свои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приветствия.*

*За эти 30 лет я отправил десятки писем, но ни разу не получил от тебя весточки. Томительное чувство тоски не поддается описанию.*

*Дорогой брат, я жажду увидеть тебя.*

*Наши братья, нет, десятки тысяч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века находятся в заключении на этом острове, живя в несправедливом положении, лишённые даже возможности общ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на родине. Позорный случай 30-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когда их принудили к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2), не выходит у меня из головы. В эти дни до моей родины дошли новости о том, что Совет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готов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тех, кто об этом просил, поэтому я верю, что скоро настанет день, когда я смогу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тобой, мой брат.*

*Однако не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что уже слишком поздно. Поэтому я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ошу тебя сообщить о здоровье нашей матери и брата, о благополучии всех домочадцев и о новостях от на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 материнской линии. При написании, пожалуйста, ссылайтесь на указанный ниже адрес. Пожалуйста, помоги господину Пак Но Хаку.*

*Поскольку новостей очень много, я передаю вам привет отсюда.*

*Благодаря заботе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родине, у нас с женой всё в порядке, наши четверо сыновей и дочерей живы и здоровы. К сожалению, моя младшая сестра(брат?) (3) Сундок (順德 순덕), скончалась 27 апреля 1951 года. Пожалуйста, не горюйте и не беспокойтесь слишком сильно. Ли Чхиль Рён (李七龍 이칠룡) также скончался от болезни 5 апреля 1972 года, а Ким Гван Джун (김광준) – 20 сентября 1962 года. Хотя это и печальные новости, пожалуйста, поделитесь ею с их семьями, потерявшими близких. Также скончались Чан Гым Чуль (장금출) и его братья, и только Чан Гым Сик (장금식) женат и имеет семью.*

*На Сахалине наши несчаст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игде не могут найти, кому бы излить свою печаль, и каждый день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умирает.*

*Все они страдают от тоски по дому. Встретятся — и только и разговоров, что о родине. Даже лежа на смертном одре, они просят: «Если умру, запомни, в какой день и месяц это случилось, и когда-нибудь, если вернешься на родину, найди мои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и передай им» (4). Слов накопилось целая гора, целое море, но на этом закончу. 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буду ждать, когда вы получите это письмо и передадите через радиовещание подробные известия о благополучии.*

8 августа 1973 года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Томари  
Им Сун Сок (林順錫 임순석)

#### Комментарии:

(1) Пись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имеет для них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и ведёт св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 древности. Корейская каллиграфия (кор. 서예) — особое искусство,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Четыре друга (文房四友 문반사우 мунбан-сау) — это четыре предмета, без которых невысказанно пись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 кисть, тушь, тушечника и бумага. Они считались неотъемлемыми атрибутами образован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человека.

(2) После аннексии Кореи Японией в 1910 году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стало объектом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ключая трудов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Южная часть Сахалина (Карафутто), находившаяся под японским контролем с 1905 года, остро нуждалась в рабочих руках для развития угольной, лесной и целлюлозно-бумаж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 1910–1930-е годы,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Карафутто носило в основном добровольный характер через вербовку компаниями, такими как

«Мицуи Майнинг», предлагавшими заработки выше, чем в Корее.

Ситуация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изменилась с началом Тихоокеанской войны в 1937 году и введением в 1938 году Закона о всеобщей мобилизации. Трудовая мобилизация принял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С 1939 по 1945 год на Карафутто было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мещено около 16 113 корейцев.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тяжелейшие услови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угольные шахты (Каваками, Сираторидзава, Торо и др.), а также в порты, на лесозаготовк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абочий день длился 12 часов, част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удерживалась в виде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сбережений на счета в японских банках, питание было скудным, а уровень травматизма и смертности — высоким.

Особой трагедией стала,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повторная вербовка» в августе 1944 года, когда в связи с воен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около 3000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были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переброшены с сахалинских шахт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Японии (остров Кюсю, город Дзёбан). Это привело к окончательному разрыву семейных связей,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инство рабочих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семьями, оставшими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переход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к СССР в 1945 году, корейцы,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оказались в положении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без возможности репатриации на родину и составили ядро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Вопросы компенсаций з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и невыплаченные сбережения остаются нерешён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о сих пор.

(3) Слово донсен (동생) с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младший брат или младшая сестра.

(4)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беспокойство знакомых автора письма основано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поминальных обрядов, которые имели и имеют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Исторические поми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ев, известные как чес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глубоко укорённый в культуре обычай регулярного почитания умерших предков. Их возникновение и строгий порядок связан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нфуцианских норм в эпоху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когда сыновняя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стала этическим и социальным фундаментом общества. Согласно этим принципам, долг живых перед ушедшими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мертью; наоборот, семья обязана заботиться о благополучии их душ, поддержив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еразрывную связь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В этот ритуал органично вплелись более древние анимистические и шаманистские верования о влиянии духов предков на мир живых, а также буддийск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загробном пути.

Глав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 соблюдать регулярность поминаний.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считается обряд в годовщину смерти,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Также обязательными являются чеса (обряд поминовения) во время главных народных праздников — Соллаль и Чхусок, когда души предков, как считается, возвращаются в родной дом. Центром ритуала является тщательно приготовленная ритуальная трапеза, блюда для которой расставляются по особому, строго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ному порядку. Церемонией традиционно руководит старший сын или прямой потомок мужского пола, который от имени всей семьи совершает глубокие поклоны и подносит духу предка угощение и вино. Участие в чеса исторически было прерогативой мужчин рода, а роль женщин сводилась к подготовк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яств — одной из их ключев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Смысл этой традиции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простых ритуалов. Это акт поддержания семейной иерархии, укрепления родственных уз и демонстрации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Через чеса живые выражают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 продолжают проявлять сыновнюю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а духи предков, получая почтение, обретают покой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арят семье защиту и благословение.

Комментарии: Юлия Дин, к.и.н.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Правка: Виктория Бя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одоление переворота –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тойкости демократии

Преодоление попыт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предпринятой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ало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подтвердившим стойк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мократ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3 декабря, в день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ы попыт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 обращением к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ы.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XXI ве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произошёл в так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е, как РК. Столь же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случай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переворот был мирно и достойно преодолен руками безоружных граждан», - сказал он. «Я убежден,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преодолевший кризис демократии мирным путём, в полной мере заслуживает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мира. РК показала пример всем странам, сотрясаемым конфликтами и разногласиями», - добавил Ли Чжэ Мён. Он сообщ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ждённое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волюции Света», объявит 3 декабря «Днё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в честь мужества народа. Те, кто стремился разрушит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порядок ради личной выгоды, должны быть привлечены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н добавил, что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где перевороты невозможны, а суверенитет граждан защищён, требу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 РК и Иран обсудили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К и Иран провели 30 ноября в Тегеране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елегации возглавлял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фрики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МИД РК Чон Гван Ён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Океании МИД Ирана Али Асгар Мохаммади.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а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Были затронуты также последние событ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егераном ухудшили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ША возобнови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Ирана в 2019 году, что привело к заморозке платежей Ирана за экспорт нефти в РК. Отношения восстановили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2023 году США разморозили активы.

## Платформы онлайн-торговли проверяют статусы защиты да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проводят экстренную проверку статуса защиты данных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из них Coupang сообщил о краже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33 млн 700 тыс. своих клиентов.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мпании, допустившие утечку данных, могут быть оштрафованы на сумму до 3% от выручки. SK Telecom, ведущий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был оштрафован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утечки данных на 134 млрд 800 млн вон (92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орговых платформ Gmarket, SSG.com усилили плановые проверки. Эксперты заявили, что утечк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аличии у Coupang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уязвимости в опер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и системе внутреннего контроля.

## K-Beauty стремительно завоёвывает рынок США

Косметик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оникает на полки крупных розничных магазинов США, - сообщает CNBC.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омпании Nielsen IQ, на которую ссылается CNBC, продажи продукции K-Beauty в США в этом году, по прогнозам, достигнут 2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3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то время как косметическая индустрия всё ещё пытается избежать последствий 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рампа, K-Beauty продолжае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рост на американском рынке. Компания Ulta объявила о росте продаж 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и на 38%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Крупные супермаркеты, такие как Walmart и Costco, также заметили растущи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спрос на корейскую косметику и расширяют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включая эссенции, сыворотки и наборы масок.

## В Бангкоке прошла выставка «Кухня Сеула-2025»

С 26 по 28 ноября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организовало в Бангкоке выставку «Кухня Сеула-2025».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продви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регионе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выставке участвовали 13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более 400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из стран региона.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езентаци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ов Seoul Food Awards, кулинарные шоу и дегустации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именялись системы синхронного перевода и видеосвязи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отдельном зал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20 м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из провинций Чолла-Намдо и Канвондо.

##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ве стадии рассмотрения успешно пройдены

**Как принимаются закон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роится по следующе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1) Подкомитет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법안심사소위원회)

—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обсуждение обоснованности поправок и решение о том, может 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про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2) Общее заседание профи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위원회 전체회의)

В нашем случае это Комитет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объединению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На этом этапе комитет утверждает результаты подкомитета и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е передать законопроект в следующую инстанцию.

3) Комитет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 правосудию (법제사법위원회)

— юрид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формулировок и структуры зако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Конституции, отсутствие юридических коллизий).

4)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본회의)

—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심의) и голосование (의결).

5) Передач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обнародование (정부 이송 · 공포)

—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обнародования закон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 Содержание поправок: что именно предлагается изменить?

Поправки вносятся в ст. 2, пункт 2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расширяя круг лиц, признаваемых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동반가족).

Новая редакция определяет, что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считаются:

а) суп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его дети и супруги этих детей

б) супруг(а) и де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который умер, а также супруги этих детей

в)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г) супруг(а) и де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который умер, а также супруги этих детей

д)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е)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ж)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з)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и)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й)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к)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л)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м)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н)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о)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п)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р)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с)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т)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у)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ф)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х)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ц)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ч)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ш)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щ)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ъ)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ы)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э)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б) супруг(а) и де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который умер, а также супруги этих детей

с)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д)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е)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ж)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з)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и)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к)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л)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м)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н)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о)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п)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р)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с)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т)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у)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ф)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х)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ц)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ч)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ш)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щ)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ъ)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ы)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э)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ё)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ю)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я)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а)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б)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в)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г)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д)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е)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ж)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з)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и)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к)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л)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м)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н)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о)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п)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р)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с)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т) если у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или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нет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семьёй признаё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직계비속) и его супруг

## Ким Чен Ын пообещал своим военным летчикам усилить ВВС стран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масштабные торжества по случаю 80-летия создания своих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28 ноября на авиабазе Кальма, и главным действующим лицом стал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ого сопровождала дочь Чжу Э. Это было ее первое появление с сентября, когда она участвовала в визите отца в Китай. Лидер КНДР провел насыщенный день: возложил цветы к мемориалу пилота-героя Киль Ён Чжо, посмотрел на авиашоу,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докладе, концерте и прием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В своей речи он также пообещал усилить ВВС страны, что, как считают в Сеуле, означает оснащение авиации новыми ракетами и БПЛА.

###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активы" и "новые задачи"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вождь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которая стала основой для различных прогнозов для выясн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й авиации Страны чучхе.

В своей речи Ким заявил, что на ВВС КНДР будут возложены "новые важные задачи" и они получат "нов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оенные активы".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менно воздушный компонент теперь должен играть "одну из ключевых ролей" в укреплении потенциала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страны. Лидер КНДР вновь повторил традиционный тези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шительно пресекать"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и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ника и заявил, что превосходство в воздухе определяется "идеологией и духом", а не только техникой.

### Что показали на авиабазе Кальма

Событием дня стало первое появление ракеты, внешне чрезвычайно похожей на немецкую крылатую ракету Taugus, которой оснаще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виац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Таурус" был подвешен под истребителем МиГ-29, что сразу привлекло внимание воен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Военный эксперт и депута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Ю Ён В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речь идет именно о новой дальнбойной ракете класса "воздух - земля" и отметил очевидный рост удар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ВС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КНДР показала обновленный набор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самолетов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Среди них - аппарат, похожий на американский RQ-4 Global Hawk, ударный БПЛА, напоминающий MQ-9 Reaper, а также самолет раннег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нешне схожий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Pease Eye. Впервые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Пхеньян 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уск новой ракеты "воздух-воздух"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с истребителя, а теперь представил и другие элементы воздуш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 Какие активы обещаны боевой авиации КНДР?

Фраза Ким Чен Ына о "нов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енных активах" не была расшифрована официально, однако сам визуальный ряд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вол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м экспертам очертить несколько возмо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о-первых, появ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Тауруса" ясно показывает стремление Пхеньяна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окоточных глубоких ударов по наземным целям. Такие ракеты потенциально позволят ВВС КНДР угрожать объектам в тылу Южной Кореи, обходя тради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ПВО.

Во-вторых, демонстрация аппаратов, похожих на американск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ПЛА, указывает на попытку создать беспилот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и ударный контур, который Север ранее компенсировал раке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Теперь он стреми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авиацию и беспилотники как часть единой системы разведки и целеуказания.

В-третьих, публичное участие новых типов самолетов раннег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КНДР пытается закрыть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слабых элементов своих ВВС - отсутствие надежного воздуш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и контроля. Безусловно, многие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и на присутствие дочери Ким Чен Ына Чжу Э. Это первый ее выход на публику после китайской поездки в сентябре. Она была одета в длинное черное кожаное пальто, зеркально повторяющее образ отц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лучшим серебряным добровольца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VI форум серебряных добровольцев «Сила опыта — сила добра». Традицион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добровольц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ют в России 5 декабря.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00 волонтеров со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гостям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егодня начинае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семинар,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вы обсудите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овы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Многие из вас являются волонтер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 вы,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знаете о потребностя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ы — мои союзники, и вместе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волонтерам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участники движения работают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спорт, культура и экология. Число волонте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вышает 1,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 Я являюсь чемпионкой России среди пенсионеров по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и дартсу. Сегодня я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реди ж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зываю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ести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не сидеть дома и занимать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 поделилась волонтер Любовь Предеина.

Большую работу серебряные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водят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держание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 двор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области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свыше 7,4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и 5,5 тысячи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 очереди ремонт подвалов. Так, до 2026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1100 помещени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страняются причины подтоплений.

— Я призываю вас вместе 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в подвалах было сухо. Если в каком-то подвале есть вода, адрес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зять в работу. Состояние подвала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омфорт жильцов всего дома,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олонтеры уделяют рабо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ям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добровольцы своими руками готовят суповые наборы, вяжут теплые вещи, шью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собирают грузы и готовят их к отправке на передовую.

— Мы активно помогаем бойц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зоне СВО, — организовываем автопробеги, отправляем посылки на фронт. В этом году мы инициировали акцию «Тысяча для СВОих» и собрали для наших ребят тысячу пар носков.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это будут медикаменты. Планируем проводить сбор регулярно, раз в два месяца, — поделился серебряный доброволец из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Прохоров.

—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называется «Анива со СВО-ими». Мы делаем сухие души, изготавливаем одеяла, подготавливаем посылки к отправке.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еде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мастер-класс. Я люблю свое дело и наших волонтеров. Приятно, что наш труд так высоко ценят. Сама я мать троих детей, бабушка шестерых внуков.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активному развитию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я могу не сидеть дома, а приносить такую большую пользу и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 подчеркнула волонтер из Анивы Елена Козырев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б успехах области по целому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Так, медиц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знана самой доступной в стране. Закрыта потребность региона во врачах разной специализации, решен вопрос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Сейчас упор сделан на качество оказываемых услуг. Также с начал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оются дв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хирургии — в област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все виды операций. Всего за 5 лет в регионе открыты 47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обратили на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на островах. Многие отметили — их дети состоят в различн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ах, в том числе входят в труппу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А.П. Чехо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регион не будет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В планах — открытие консерватори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острова придут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чтобы оцен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джазовый и детский оркестры, появился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открыт Цирк. Началось обуч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м филиале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Сахалин стал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движения КВН на Даль-

нем Востоке.

Отметим,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два дня. За это время серебряные добровольцы обсудят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пообщают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укрепят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е связи и поделятся лучшими практиками. Кроме того, волонтеры посетят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ове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презентации. Для бойцов СВО изготовя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противодроновые покрывала и другие изделия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 На южном участке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установят освещение, а в Дальнем и Луговом модернизируют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о вторник, 2 декабр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горожане смогли напрямую спросить о проблемах, требующих внимания властей, и планах по развити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ия обращений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сфере ЖКХ. Так, жительница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 10 по улице Милейской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ускорить сроки ремонта крыши.

— В нашем доме в 2008 году была изменена конструкция крыши: она была плоская, а сделали двускатную. Выполнили работу с нарушениями, вода стекает по фасаду. Люди многократно обращалис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еред встречей с вами, на приеме у министр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крышу нам заменят только в 2028 году, — рассказала горожанк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подтвердил: разработка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2027 год, капита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крыши — на 2028-й. Однако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не устроило.

— Выполняйт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в 2026 году и по мере готовности приступайте к ремонту.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ане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еверное решение, от которого пострадали люди. Наше обязательство сегодня — помочь и исправить эту ошибку, — дал поруче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интересовали планы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жилого фонда.

—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з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омов № 11 и 12 по улице Спутник-2. Жители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построена. Но вопрос остался незакрытым, потому что в других домах, на первой линии, ремонт так и не начался, — обратился собственник жиль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ЖКХ пояснили, что реше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монта будет принято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6 года — после оценки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домов. Если здания признают аварийными, жителей включают в программу переселения. Всего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из ветхого жилья в благоустроенное переехали 500 семей.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ит еще 131 семья.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также была озвучена проблема качества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Вопрос уже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решения. В рамках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ВК «Сахалин» ве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агистральной сети от водозабора «Луговое», который будет подключен к существующим сетям села Дальнего. Ввод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декабрь 2025 год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лож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ети, что позволит закольцевать систему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застаивание воды в тупиковых участках.

Ряд вопросов касался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 Сделали очень хорошую дорогу в четыре полосы на юге. Но сейчас поворот с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в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Горизонт» небезопасен. Потому что несутся груженные машины, они просто пролетают на красный свет.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освещение и поставить камеру, чтобы не случилось трагедии. Ведь через эту дорогу ходят дети! — обратилась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уточнил, что освещение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дороги будет обустроен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опрос об установке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Госавтоинспекции. Также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ьницы на нестаб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город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ыпустить на маршрут № 71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автобусы.

В ходе общегородс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тупили две жалобы на нарушение стандартных срок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талонов к терапевту и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по каждому случаю провест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на встрече с населением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личные обращ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Так,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к губернатору супруге бойца СВО окажут содействие в переводе детей в школу рядом с домом. Матери участника спецоперации помогут оформить жи-

лищный сертификат. Будет решена и проблема горожанки, воспитывающей ребенк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девочки сформируют комфортный график обучения.

—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 это важнейший инструмент в нашей работе с жителями. Я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особую роль губернатора, который демонстрирует этот принцип своей ежедневной работой. Поэтому мы проводим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убличных встреч и личных приемов. Они помогают нам вместе с людьми менять город к лучшему, —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тся работы по продлению улицы Горького

Дорога станет дублером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и разгрузит выезд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торону Корсакова и села Охотского. О ходе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е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и во время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открыть движение по новой магистрал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2,2 километра, долж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объекте находятся около 2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и 20 рабочи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дется параллельно на двух участках. Со стороны улицы Большой устраивают основание дороги, формируют подпорные стенки и укрепляют склоны, со стороны Зимы — укладывают гидроизоляцию и бетонируют колодцы, прокладывают ливневки.

Полным ходом продолжаетс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магистралей для развития дорожной кар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рога соединит три ключев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трассы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ведущи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Оху, Холмск и Корсаков.

Первый этап — между селами Троицким и Дальним — завершат в 2026 году. Протяженность участка — 8,3 километра. О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четыре моста через реки Имановку, Славуту, Маяковского, Владимировку и один путепровод через улицу Кленовую.

— До конца года мы планируем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свайное поле. Сегодня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на 91% — установлены 246 свай из 282. Еще одна задача — устройство стоек и ригелей на всех сооружениях и переход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балок на двух мостах через реки Имановку и Славуту. После приступим к заливке бетонных плит, — сказал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Сегодня на объект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150 человек и 51 единица спецтехники. Уже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ы 1300 метров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На остальных участках продолжают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укладка водопропускных труб, рабочего слоя и основания дорожного покрытия.

— Важн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ывести весь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за пределы города и разгрузить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м,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ах были заморожены из-за ф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 у подрядчика. Губернатор взял антикризис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 свои руки. Благодаря оперативным мерам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ах идут по графи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Почти 700 соискателей с ОВЗ трудоустроили кадровые центры Сахалина с начала года

Это на 70%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ботают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транспорта, торговл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в органах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нты предоставили им персональ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и подобрали оптимальный рабочий график с учетом физ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и Ковалевой, на субсидируем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трудоустроили 46 граждан, на оборудованные — двоих. По квоте нашли работу 49 сахалинцев. Еще 42 жителя прошли переобучение, 17 открыли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За каждым клиентом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в кадровых центрах закреплен карьерный консультант. Он сопровождает соискателя на этапе поиска работы и продолжает посл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добавила она.

При найме кандидат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Кадры» работодател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частич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на оборудованное рабочее место — до 200 тысяч рублей.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покупку и установку специального оснащения или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домашней работы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групп,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 ОВЗ. В регионе уже оборудовали пять таких мест.

Сегодня на портале «Работ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доступно более 270 вакансий,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квотиров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в любом офисе кадрового центра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폴리텍대학서 한국어 공부 동부산캠퍼스서 교육과정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이창열·이하동 부산폴리텍)는 지난 11월 26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한국어·기술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동부산폴리텍은 부산사할린영주귀국자회와 오랜 협의 끝에 지난 6월 43명의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전기&기계 분야 기초기술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날 수료식을 가진 사할린동포들은 6개월동안 수준에 따라 기초·심화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우리나라 유적지와 박물관 등 문화체험을 통해 우리나라를 좀 더 이해하고, 전기·기계분야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기술분야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틀을 마련했다.

이창열 학장은 "사할린동포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정착과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교직원들이 노력했다"며 "올해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도움되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겠다"고 교육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동부산폴리텍은 이날 수료식을 가진 과정 외에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수업, 만 15세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한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용접기사' '컴퓨터용



지난 11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에서 가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한국어·기술교육과정 수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제공 용가공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을 통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전문기술·하이테크과정과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특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 재외동포청,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봉사활동

## 인천 연수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사랑의 급식소'에서 배식 및 설거지 봉사

재외동포청과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은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사랑의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외동포청 직원들과 고려인 동포 청년들은 인천 연수구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음식 배식,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의 어르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 배식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임나탈리아 대한고려인협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연수구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시행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 소통하며 상호 이해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금년에 국내 귀환 동포들과 공동 헌혈 행사,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대립동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 인천 연수구 내 최대의 무료 급식소로 일일 약 240명 취약계층 대상 점심 식사 제공 중  
(재외동포청 제공)



#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 동포청,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증받는 불편 해소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우리 국민의 해외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가 증가해 왔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되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정하며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현재 231개소 지정('24.12. 기준))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 사문서의 경우 공증 절차 후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 사투리 배우기

한국의 지방 도시 또는 농어촌에 가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이거나 이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이나 결혼 등으로 이민 온 사람이 오히려 표준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방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표준어에 앞서 방언을 배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공문서나 방송 매체가 표준어로 되어 있는데, 표준어를 모르고 생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방언을 쓰는 한국인도 표준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언 생활권에서 방언을 모르고 생활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본인 빼고 모든 가족 및 친척 구성원이 지역 방언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방언 학습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은 한국어 교재 또는 전공 교재가 표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에서는 반드시 표준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료와의 관계나 지역 주민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방언의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모르면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과 깊은 교류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표준어로 쓰여졌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도 모두 표준어가 기준입니다.

저는 언어접촉에서 방언의 접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모국어 화자에게는 모국어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 간의 언어 차이는 당연합니다. 교류가 적은 시대일수록 방언 간의 이해가 어려웠을 겁니다. 때로는 외국어나 마찬가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방언은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과 방송의 영향으로 방언의 벽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언이 의사소통의 벽이 아니라 낯선 즐거움으로 취급되는 듯합니다. 방송에서도 다양한 사투리가 나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한 무대가 아예 지방이고, 주인공이 시종일관 사투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를 무대로 한 드라마가 여러 편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언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과의 접촉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편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에 '부산어 회화'라는 교재가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일본인이 부산에 관광을 많이 오는 것도 이런 책을 출간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부산어 회화책에는 어휘나 표현뿐 아니라, 문법과 억양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부산을 찾는 일본인이 부산어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산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단체 또는 출판사에서 지역별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면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표준어로 된 한국어 교재에도 방언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대학에서 만드는 교재라면, 몇 과의 내용을 방언으로 꾸밀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각 과에 제시된 문법이나 어휘에 대응하는 방언을 소개하는 코너를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에는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언과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어 학습자, 관광객, 결혼 이민자, 지역 유학생, 취업자 등을 위한 충분한 방언 교육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사진과 개인적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체호브 센터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어 섬의 여성들이 강한 여성들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타치야나 코르네예와 관장은 이번 사진 프로젝트가 일상의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공동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언급했다.

## Сахалинский Чехов-центр организовал трогательный фотопроект ко Дню матери

Праздничный фотопроект,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Дню матери, стартовал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Проект назвали «Главная роль», он символизирует двойственность жизни актрисы, которая исполняет важную роль не только на сцене, но и в жизни своих дет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Чехов-центра.

Через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театр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бъявить 2025-й и 2026-й —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Женщина не обязана выбрать между материнством и карьерой, а может совмещать роли — об этом напомнил Чехов-центр на примере актрис и даже директора учреждения.

В съемках участвовали многодетная мать Ксения Кочуева,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двоих детей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и директор Чехов-центр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и дру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театра.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 площадке Новой сцены и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театрального кафе «Культурное место». Фотографии и личные истори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будут публиковать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Чехов-центра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чтобы островитянки могли вдохновиться примером сильных женщин.

Как отметила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фотопроект помог на время отвлечься от ежедневных забот и заняться общим делом с детьми.

## Сахалинцу, мотизи 첫 납입금 마련 기간으로 상위 10위 진입

러시아 통신사 '노위스씨' 분석가들이 모기지 첫 납입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에 따라 러시아 연방 지역들을 순위로 매겼다. 지불해야 할 금액 또한 고려되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сахалин주 주민은 2.48년, 즉 2년 반보다 조금 적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сахалин 지역은 전체 8위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сахалин 주민들은 모기지로 251만 루블리를 납입한다. 이 금액은 상위 10위권 중 가장 크지는 않다. 예를 들어, 추코트카의 모기지 첫 납입금은 257만 루블리에 달한다.

가장 적은 시간 동안 필요한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지역은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 주민으로, 1.68년이 소요된다. 첫 납입금 규모는 166만 루블리이다. 모기지 주택을 구입하기 가장 어려운 곳은 체첸 공화국으로, 평균 납입금 75만 루블리를 모으는 데 약 9년이 걸릴 전망이다.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в топ-10 по сроку накопления на первый взнос по ипотеке

Аналитики РИА «Новости» ранжировали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року накопления на первый взнос по ипотеке. При этом учли и сумму, которую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 жител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надобится 2,48 года, то есть немногим меньше двух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Острова заняли восьмую строчку в рейтинге. В среднем сахалинцы вносят за ипотеку 2,5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топ-10 эта сумма не самая большая. Так,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по ипотеке на Чукотке обойдется в 2,57 миллиона.

Меньше всего времени на накопление нужной суммы уйдет у жителя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 1,68 года. А размер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составляет 1,6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Тяжелее всего взять в ипотеку жилье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при

средней сумме взноса в 75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пить придется порядка девяти лет.

## 로스콤나드조르, 왓츠앱(WhatsApp)\* 러시아 내 차단 가능성 경고

로스콤나드조르(통신·정보기술·언론매체 연방 감독청)는 러시아 법률 위반으로 인해 WhatsApp의 작동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타스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감독청 홍보실이 이와 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WhatsApp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메신저는 테러 조직 및 실행사 모집, 그리고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메신저가 법률 요구 사항을 계속 무시할 경우 WhatsApp을 완전히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국내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 WhatsApp —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되어 금지된 Meta 소속의 제품.

## Роскомнадзор предупредил о возможной блокировке WhatsApp\* в РФ

Роскомнадзор продолжит поэтапно ограничивать работу WhatsApp\* из-за наруш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пишет ТАСС.

Как указано в сообщении, WhatsApp\* не выполняет треб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ресечение и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соверше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Мессенджер использует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терактов и вербовки исполнителей, а также для мошенн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против россиян.

РКН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полностью заблокировать WhatsApp\*, если мессенджер и дальше будет игнорировать требова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рекомендовал переходить на отечественные сервисы.

\* WhatsApp — продукт компании Meta, которая признана экстремистской и запрещена в РФ.

(러시아 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대한민국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전학문씨가 2025년 11월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뜻밖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고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비에 젖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сахалин 사범학교 조선과 졸업생들의 명의로 신동식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광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